

## 近代韓國圖書館史 研究\*

- 開化期の 近代圖書館 成立과 그 性格을 中心으로 -

李 春 熙\*\*

### 目 次

|                           |                    |
|---------------------------|--------------------|
| 1. 序 論                    | 4.1 大韓中央圖書館        |
| 2. 開化期の 圖書館 概觀            | 4.2 出版事業을 兼한 書籍縱覽所 |
| 2.1 朝鮮朝末 前代의 圖書館의 種類 및 技能 | 5. 專門 및 特殊圖書館      |
| 2.2 近代圖書館의 形成과 社會的 背景     | 5.1 博文局文庫          |
| 3. 近代學校圖書館의 萌芽            | 5.2 鍾路監獄署文庫        |
| 3.1 元山學舍文庫                | 6. 奎章閣의 變貌         |
| 3.2 同文學文庫                 | 7. 結 論             |
| 4. 公共圖書館                  |                    |

### 1. 序 論

문호개방 이후 신문화의 수용 과정에서 근대도서관 문화도 조금씩 싹트기 시작하였다. 수구 개화 양파의 갈등 속에서도 개화의 물결은 꾸준히 스며들어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를 몰고 왔다. 따라서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걸친 우리나라의 도서관 문화도 이러한 개화사조의 시각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개화기의 도서관은 전근대적 도서관시대에서 점차로 벗어나는 전환기의 근대도서관 萌芽시대라고 할 수 있으니, 우리나라 근대도서관의 성격과 전통도 이 시기에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필자는 이미 「近代韓國圖書館史研究：開化期에 있어서 近代圖書館思想의 形成過程을 中心으로」라는 논문에서 근대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싹트게 되었는가를 발

\* 이 논문은 1991년도 교육부 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成均館大學校 文獻情報學科 敎授

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그 자매편이라고 할 수 있으니, 상기 논문이 사상적인 측면을 다룬데 비해 본 연구는 그러한 사상적 배경 속에서 근대지향의 도서관의 싹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는가 그 실상과 성격을 고찰하는데 있다. 그것은 또한 일제의 침략으로 오랫동안 단절된 우리 고유의 근대도서관 전통의 맥을 밝히려는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본 연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관련자료의 미비로 필자가 기대했던 결론은 얻지 못한 채 하나의 문제 제기로 끝난 아쉬운 점도 있다. 훗일의 보완과 연구에 기대한다.

## 2. 開化期의 圖書館 概觀

### 2.1 朝鮮朝末 前近代의 圖書館의 種類 및 機能

朝鮮朝末까지 우리나라에는 대체로 다음 네가지 종류의 도서관이 있었다. 즉 (1) 奎章閣, 史庫 등과 같은 王立圖書館 (2) 尊經閣, 鄉校, 書院文庫와 같은 教育文庫 (3) 寺刹文庫 (4) 個人文庫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중 寺刹文庫는 조선조 후기로 내려오면서 더욱 쇠퇴하였으며, 개인문고 역시 극히 미미하여 特記할 만한 것이 없다.

따라서 朝鮮朝를 代表하는 도서관은 奎章閣을 비롯한 일부 왕립도서관과 교육문고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奎章閣은 朝鮮朝 제1의 도서관으로서 중앙도서관적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한편 尊經閣은 當朝 唯一의 대학도서관이었다.<sup>1)</sup>

이들 前近代의 도서관은 君主制社會의 產物이었으므로 그 기능 역시 君臣체제유지에 필요한 文獻資料를 수집 보관하여 국왕을 위해 봉사하는데 있었다. 또한 그 設立이나 管理의 主體가 國王中心의 官府에 있었으므로 利用者層도 극히 제한된 일부 貴族과 高官들이었으며, 尊經閣과 같은 教育文庫의 경우도 그 利用層은 成均館 官員과 예비 관리라고 할 수 있는 儒生들로 국한되어 있었다. 이처럼 前近代의 도서관의 두드러진 특징은 一般 大衆과는 거리가 먼 일부 지배층의 專有物이 되고 있었다는 점일 것이다.

그리고 이들 도서관에 收藏된 도서 역시 그 收集範圍가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朝

1) 拙稿: 尊經閣考. 大東文化研究, 第10輯, 1975

鮮王朝의 國是인 儒敎의 교리와 어긋나는 言動을 하게되면 斯文亂賊으로 몰리어 지탄의 대상이 되는 社會였음으로 이와 배치되는 서적들은 수집대상에서 除外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佛敎는 물론이고 老莊의書나 중국에서 성행했던 陸王之學에 관련된 서적들도 모두 雜家之書라하여 收藏이 금지되었다.

이와같이 前近代의 도서관은 利用者뿐만 아니라 收藏對象도서의 범위도 매우 制限되어 있었음으로 독서를 통한 創造의인 思考나 활동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近代圖書館이 民主社會의 產物로서 萬人的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 보관하고 자유로운 독서와 창조적 활동을 돕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차이로 하겠다.

## 2.2 近代圖書館의 形成과 社會的 背景

開化期の 近代도서관 形成에 영향을 끼친 사회적 요인은 대체로 外國의 文物制度見聞, 愛國啓蒙運動, 新敎育運動, 宗教活動 등 네가지로 要約될 수 있겠다.

### 2.2.1 外國의 文物制度 見聞

조선의 일부 지식인들이 思想的으로 큰 전환을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淸, 日, 美 등 外國과의 交流에 있었다. 이 보다 앞서 門戶開放을 전후하여 중국을 통해 西洋의 科學知識을 소개한 도서의 수입도 思想 轉化너에 대한 영향을 주었다. 開港 이후 조선정부는 西洋의 文物制度和 新技術을 도입하기 위하여 日本에는 수차에 걸쳐 修信使의 往來, 1881년에는 紳士遊覽團의 派遣이 있었으며, 淸國는 領選使 一行과 함께 수십명의 젊은 學徒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1883년에는 兪吉濬의 美國遊學을 시작으로 徐載弼(1886), 尹致昊(188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도서관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이들 개화기 선각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니, 兪吉濬은 「西遊見聞」이라는 著書를 통해 서양의 근대도서관을 처음으로 소개하였으며, 尹致昊는 大韓中央圖書館 設立운동의 發起人의 한사람이기도 하였다.

同文學(校)의 設立과 그 文庫의 形成도 中國의 同文館을 모방한 것으로 淸國의 領選使로 갔던 金允植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여겨진다.

### 2.2.2 愛國的 啓蒙運動

大衆的인 啓蒙運動은 徐載弼이 이끄는 獨立協會가 발족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日

제의 강압에 의해 체결된 乙巳條約 이후는 國權回復과 民族意識의 高揚을 위한 愛國啓蒙運動이 保安會, 大韓自強會 등 많은 단체들에 의해 활발히 전개되었다. 애국계몽 운동은 新教育운동, 사회문화운동으로 이어졌으며, 1906년에 나타난 大韓中央圖書館 설립운동도 이러한 계몽적 사회문화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言論기관의 발달은 愛國啓蒙運動을 떠나가는데 重要的 역할을 하였으며, 근대서관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높이는 데도 큰 몫을 하였다. 특히 皇城新聞과 大韓每日新報는 도서관에 대한 계몽적 記事를 자주 게재하므로써 신문 독자들에게 근대서관 설립의 必要性을 고취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 2.2.3 新教育運動

앞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新教育운동도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展開된 것이다. 개화기의 진보적 지식층들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견해를 두루 가지고 있었으나, 서양의 신학문과 신기술을 섭취하는 것이 제국주의열강의 침략에 맞설 수 있는 富國強兵의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在來의 書堂教育에서 벗어나 新教育運動을 이르게 많은 신식학교가 設立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新教育運動을 이르게 많은 수의 학교가 출현하였다. 학교는 官立보다는 民間 주도의 教育熱이 더욱 높아 私立이 훨씬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굴욕적인 乙巳條約이 체결된 1905년을 전후한 시기에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었다.

教育機關에는 書籍이 필연적으로 要求되는 곳임으로 文庫 또는 도서관이 形成되기 마련이다. 한 예를 들면 近代의 私立學校의 嚆矢인 元山學舍의 경우도 교육에 필요한 도서의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미미하나마 學校文庫가 형성되고 있었다.(제3장 參照) 開化期의 學校들은 設立 初期인데다 재정상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으므로 별도의 學校도서관을 설치할 수는 없었다.

### 2.2.4 出版活動

圖書出版이 없는 곳에 도서관이 생겨날 수 없는 것 처럼 이 兩者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近代도서관의 萌芽과정에서 新書籍의 出版活動이 차지했던 비중은 그만큼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 근대적 印刷기계와 기술이 도입되어 처음으로 刊行物이 나오게 된 것은 1883년으로 漢城旬報가 그 嚆矢이다. 다음 해부터는 民間에서도 印刷기계를 드려와 出

版事業이 시작되었으니 廣印社를 비롯하여 廣學書鋪, 匯東書館 등 出版社와 新書籍을 다루는 書肆의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였다. 정확한 統計는 아니지만 開化期에 운영되고 있었던 主要 出版社와 書肆는 約 50개 전후로 추산된다<sup>2)</sup>

甲午改革 이후 1900年 以前까지는 出版圖書의 種類가 매우 적었다. 그것도 大部分은 政府에서 發行한 教科書類이고 일부는 宣敎機關에서 刊行한 기독교 관계 서적이 고작이었다. 民間 주도의 도서출판이 활발해진 것은 日帝의 強壓에 의해 乙巳條約이 체결된 1905年 이후로 愛國啓蒙運動이 더욱 고조되었던 시기와 때를 같이 하고 있다. 또한 이 시기는 앞서서도 言及한 바 있는 近代學校 設立運動이 급속히 增加 추세를 나타내고 있던 때이기도 하다.

이 때에 刊行된 도서들의 內容은 愛國精神의 고취와 과학기술의 普及을 목적으로 편찬된 教科書類가 主流를 이루고 있었으며, 이밖에 극히 적은 수의 小說類, 傳記類 등이 있었다.<sup>3)</sup>

皇城新聞(1898. 9~1910. 9) 廣告欄에 게재된 約12年間の 新刊圖書를 대상으로 그 種類를 集計해보면 約400種에 불과하다. 물론 이 증수는 皇城新聞 한가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 신문이 創刊된 1898年 以前의 刊行도서와 신문에 廣告되지 아니한 圖書는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全體性을 欠한 것이기는 하나 開化期의 出版傾向을 이해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여겨진다.<sup>4)</sup>

다음 <表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出版圖書 種類는 1905년 이후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추세를 보이다가 1908년에 이르러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굴욕적인 乙巳條約 이후 日帝의 간섭이 날이 갈수록 심해짐에 따라 더욱 고조되어간 애국계몽운동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다.

<表 1> 皇城新聞 所載 出版圖書年度別統計

| 年度 | 1899 | 1900 | 1901 | 1902 | 1903 | 1904 | 1905 | 1906 | 1907 | 1908 | 1909 | 1910 | 計   |
|----|------|------|------|------|------|------|------|------|------|------|------|------|-----|
| 種數 | 5    | 3    | 3    | 6    | 3    | 3    | 8    | 11   | 38   | 138  | 97   | 79   | 394 |
| %  | 1.3  | 0.8  | 0.8  | 1.5  | 0.8  | 0.8  | 2.0  | 2.8  | 9.6  | 35   | 24.6 | 20   | 100 |

2) 皇城新聞(1898~1910)과 開化期에 刊行된 太極學介 등 雜誌의 廣告에서 集計한 數字임

3) 皇城新聞, 1898~1910

4) 同上

이러한 開化期의 열악한 出版 風土에서 近代圖書館의 빠른 成長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으며, 매우 빈약한 萌芽의 文庫 形態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었다.

### 2.2.5 宣敎事業

門戶開放 이후 활발히 전개된 外國人의 宣敎事業은 한국의 開化運動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특히 이들에 의해 전개된 敎育과 出版事業은 한국의 도서관 近代化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한 예를 들면 미국 감리교 소속의 아펜젤러(H. G. Appenzeller)에 의해 설립된 培材學堂은 最初의 별도 近代도서관 시설을 갖춘 學校였다.<sup>5)</sup> 한편 이들 선교기관에서 펴낸 책들은 거의가 다 聖經 중심의 기독교관계 서적이었지만 때로는 한글로 된 우리말 사전, 「라병론」, 「태모위생」 등 의료 위생에 관한 서적도 刊行하였다.

## 3. 近代學校 圖書館의 萌芽

門戶開放 以後 오랫동안 鎖國政策을 써온 朝鮮政府는 비로소 國際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하여 새로운 西洋文明이 매우 빠른 속도로 흘러 들어오게 되었다. 開化運動도 政治, 經濟, 敎育 등 여러 分野에 걸쳐 활발히 展開되어 갔다. 敎育에 있어서는 在來의 書堂에서 新學問을 가르치는 近代學校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近代學校의 成立은 곧 近代學校圖書館의 形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開化期 圖書館研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며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바 意義는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開化期에 접어들면서 많은 學校들이 設立되었으나 이들 學校들이 모두 다 敎育에 必要한 文庫 내지는 圖書館을 두고 있었는지, 두고 있었다면 과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의 것이었는지 現在로서는 이에 관한 資料의 不足으로 그 전모를 밝힐 수 있는 調査, 研究가 사실상 어려운 실저어에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다만 初期 近代學校의 成立 과정을 통해서 學校圖書館이 必要 不可缺한 要素로 登場할 수밖에 없었던 諸般條件을, 다시 말하면 學校文庫의 胚胎 可能性을 追求하는데 焦點을 두고 一部 學校만을 對象으로하여 初期 近代 學校圖書館의 性格을 밝혀 보고자 한다.

5) 培材八十年史, 배재학당, 1965

近代學校의 종류를 設立者別로 보면 官立과 私立으로 나눌 수 있으며, 私立은 다시 民族系와 基督教界의 學校로 大別할 수 있다. 時代別로는 甲午改革(1894)을 起點으로 하여 前後 兩期로 나눌 수 있으며 前期를 近代教育의 萌芽期라고 한다면 後期는 新學制에 의한 近代教育制度의 成立期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學校圖書館의 性格도 이러한 맥락에서 考察되어야 함은 勿論이다.

### 3.1 元山學舍文庫

지금까지 조사 연구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最初의 近代學校는 元山學舍로 알려져 있다.<sup>6)</sup> 이 學舍는 1883年 9月 28日(음력 8月 28日)에 德源(元山)府使兼監理 鄭顯이 政府에 인가 申請을 내고 있으나 學舍의 設立은 이미 그 以前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sup>7)</sup>

學舍의 設立動機는 첫째 1880年 4月 元山이 開港됨으로써 日本의 浸透와 그 商人들의 도전을 직접 받게 되어 元山住民들의 外勢에 대한 民族意識이 高揚되었다는 點, 둘째는 列強의 侵入을 막고 富國強兵을 實現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技術과 知識을 배우는 것이 急先務이며, 따라서 新學問을 가르치기 위한 教育機關의 設立과 人材養成의 必要性을 切感하게 되었다는 點일 것이다.

그러므로 元山學舍의 가장 큰 특징은 學舍의 設立者가 다른 教育기관 처럼 어느 個人이나 또는 政府에서 設立한 것이 아니라 德源의 鄉中父兄들과 元山社의 백성들이 일부 개명적 관료들의 協력을 얻어 設立하였다는 點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장 自主的이며 獨自性을 띤 最初의 近代學校라는 點에서 그 역사적 意義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入學資格에 있어서도 身分의 제약없이 俊秀總敏한 子弟라면 누구나 다 入學할 수 있게 하였다.

教育內容을 보면 두 개 班으로 나누어 文士班에서는 經義를, 武士班에서는 兵書を 各各 먼저 가르치고, 다음 두 개 班이 다같이 時務에 관한 것, 卽 算數, 格致(物理), 器

6) 橫鐮廈 <우리나라 最初의 近代學校 設立에 대하여> 韓國史研究. 10. 韓國史研究會, 1974

7) 上揭書, p. 192 <元山學舍는 1883년 봄부터 여름에 걸쳐 세워진 것으로 보이며, 늦어도 이 해 8월 28일 이전에 學校設立을 완료해 놓고 정부에 보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8) 春城府志. 寫本. 1885. <興學>條에 依하면 前. 現職官員 16名, 民間人 105名, 外國人 4名과 이밖에 中里七洞, 上里七洞, 商會所가 共同 出捐하여 設立基金 총액 6,765兩을 마련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學舍節目>에도 <一鄉父老慨然興感, 隨力出財>라고 하였다.

機, 農桑, 鑛採 등 實用的인 學科目을 배우도록 하였다.<sup>9)</sup>

舊教育 方式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近代教育의 萌芽의 性格을 잘 보여주는 學校라 하겠다.

이와 같이 새로운 學問과 技術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새로운 教科書가 必要하였을 것임으로 學校當局으로서는 學科目의 運營과 교수에 필요한 書籍의 수집에 전력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春城府誌에 의하면 元山學舍에서는 다음과 같은 도서를 備置하고 있었다.<sup>10)</sup>

〈表 2〉 元山學舍文庫目錄

| 書 名    | 卷 數 | 書 名   | 卷 數  |
|--------|-----|-------|------|
| 瀛志     | 6 卷 | 心史    | 1 卷  |
| 聯邦志    | 2 卷 | 大學豫備門 | 1 卷  |
| 奇器圖說   | 2 卷 | 瀛環志略  | 10 卷 |
| 日本外國語學 | 1 卷 | 萬國公法  | 6 卷  |
| 法理文    | 1 卷 | 農政新編  | 2 卷  |

都合 10種 32卷에 不過한 극히 소규모의 文庫이지만 新學問에 관한 書籍이 매우 不足했던 當時의 사정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규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學舍 運營에 필요한 節目중 文庫와 관련이 있는 部分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齋中書策 非契員中之人 雖一卷 無得出(書策 掌議專管專掌 若或開失 卽爲徵納)

「書策所費 與塾中公用 自契中 公議區處」<sup>11)</sup>

이를 다시 要約하면 ①學舍 中の 書冊은 契員이 아니면 단 한 卷도밖에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②書冊과 文庫의 管理는 掌議가 오로지 責任을 지고 인계인수 해야

9) 上揭書, 「興學」條 參照. 「文士則先教經義, 武士則先教兵書, 後并教以時務之緊要者, 自算數格致 至於 各樣機器 與 農畜鑛採等事」

10) 上揭書, 「興學」條 「學舍節目」

11) 上揭書, 同條



하며 ③ 만일 분실할 경우는 卽時 徵納해야하며 ④ 書冊에 드는 費用과 塾中의 公用은 契中에서 公議하여 區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節目을 통하여 元山學舍의 文庫는 도서관의 세가지 要素라고 할 수 있는 ① 圖書 ② 施設 ③ 職員을 다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비록 그 規模가 작기는 하지만 近代學校圖書館을 지향한 萌芽的 形態의 性格을 띤 學校文庫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우리나라 初期 近代學校圖書館의 효시라는 점에서는 學校圖書館史上 그 意義는 자못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 學舍가 백성들의 自發的인 出資金에 의해 설립된 것과 같이 도서관의 운영에 있어서도 契員의 公議에 의하여 처리하는 自主的이고 自發的인 운영 方式을 택하고 있었다는 점은 매우 先進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오늘의 도서관 운영 委員會와 같은 기능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 후 이 學舍는 甲午改革 이후 그 기능이 분리되어 하나는 소학교 과정인 元山小學校로 다른 하나는 中學校의 기능과 外國語教育을 겸한 語學堂으로 各各 분리되었다.

### 3.2 同文學文庫

同文學은 교육, 신문발행 등 그 기능이 다양하였으므로 이에 소속된 문고도 관점에 따라서는 교육문고로 또는 신문사인 博文局文庫로 더 크게는 統理衙門文庫로도 볼 수 있으니 그 성격을 어느 한가지로 규정지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를 본장에서 다루게 된 것은 同文學 設立의 主目的이 교육에 있었기 때문이다.

同文學에 學校文庫가 形成되고 있었는지 이에 관한 확실한 記錄이 없어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그 可能性은 매우 높다고 여겨짐으로 여기서는 다만 하나의 문제 제기로써 이와 관련된 몇가지 文獻을 중심으로 中國의 同文館의 기능과도 비교하면서 그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官에서 운영한 最初의 近代學校는 同文學(校)이라고 할 수 있으니 그 設立目的은 英語 通譯에 必要한 人材 養成에 있었다. 1882年 5月の 朝美修好通商條約이 계기가 되어 西洋諸國과의 外交 업무상 영어의 학습과 통역인재의 양성이 매우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政府에서는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協辦겸 總稅務司로 있던 독일인 뮐렌도르프(P. G. von Mollendorff)의 건의에 따라 1883年 外國語 學習을 위한 教育機關인 同文學을 設立하게 되었다.

학교의 책임자(掌敎)로는 金晚植(金允植의 從兄)을 任命하고 洋語教師로는 中國人

吳仲賢과 唐紹威를 위촉하고 主務教師로는 英國人 헬리팩스(T. E. Halifax ; 한국명 奚來百士)가 맡아서 학생을 지도하였다. 학생수는 40명 정도이고 가르치는 內容은 英語, 日語, 算數 등 이었다.<sup>12)</sup>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設置는 당시 직면하고 있던 외교통상에 관한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가 절실히 요청된데서 이루어진 것이다.<sup>13)</sup> 필요한 行政機構로서 掌交司, 征權司, 富教司, 郵程司 以上 四司를 두고 이밖에 人材育成을 위해 同文學(校)을 設立하였다. 이에 대하여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章程(以下 總署章程)에

「請分設四司 以專責成 更仿照燕京設立同文學 教育人才俾收實用」<sup>14)</sup>

라고 한 것으로 보아 同文學은 淸나라 燕京의 同文館을 모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淸의 同文館도 역시 洋務派들이 中心이 되어 外交官과 통역자 양성을 목적으로 1862年 北京에 설치한 중국 최초의 신식 교육기관이었다. 行政機構上으로는 統理衙門에 소속되어 있었다.<sup>15)</sup>

처음에는 英文, 佛文, 俄文 3개 班으로 나누어 각반마다 10명의 학생을 두고 있었다. 1866년에는 天文算學班이 증설되고 1869年 이후에는 物理, 化學 등의 과정을 증설하고, 또한 經濟學, 萬國公法 등의 과정도 있어서 점차로 현대의 大學과 같은 규모를 지니게 되었다. 同文館에서는 修學 이외에도 많은 外國書籍의 번역과 印刷所施設까지 갖추어 刊行事業도 하였다.<sup>16)</sup> 同文館애소 얼마나 많은 書籍을 刊行하였는가는 1896年 5月 刑部 左侍郎 李端棻이 皇帝에게 올린 「推廣學校以勵人材」를 통해서도 그 규모의 대강을 짐작할 수 있겠다. 그는 학교와 도서관을 各省州縣에 많이 설립하고, 中央 및 各官書局에서 印行한 書籍들을 分送 備置하여 供覽할 수 있도록 하라는 要旨의 글을

12) 金允植, 陰晴史, 下, 高宗 19年 壬午 11月 21日條

「又設同文學, 置掌教一人, 諒洞從兄主爲之, 抄擇年小聰明者, 開學堂于外衙門, 卽 通商衙門, 中原吳仲賢, 唐紹威兩生, 教習洋語」

上揭書, 高宗 20年 癸未, 4月條 「抄擇語學生, 教習於同文學校, … 學生爲四十餘人」

漢城旬報 第 15號 (開國 493年 2月 21日) 「英語學徒近況」條

「通商衙門, 設有同文學英語塾, 募集生徒, 昨年七月, 請來人奚來百士, 爲教師, 師通日語, 且有學術教授」

13)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章程(以下略統署章程)에는 그 設立目的을 「統理衙門之設, 專以請求時務參酌變通事」라고 하였다.

14) 統理章程

15) 丁致聘 編 : 中國七十年來教育記事, 臺灣, 商務印書館, 民國50年 p.1 同治元年壬戌條.

16) 劉國鈞 著 : 中國書史簡編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1958.

올리고 있는데, 그 중 同文館에서 번역 刊行한 도서도 다음 引用文에 나타난 바와 같이 分送 對象에 포함시키고 있다.

「調殿版及各官書局所刻書籍 暨同文館製造所譯西書 按部分送各省以實之」<sup>17)</sup>

劉國鈞에 의하면 同文館에서 번역한 주요 도서는 國際公法을 비롯하여 世界史, 數學, 物理學, 化學, 生理學 등 여러 分野에 걸쳐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출판된 것이 丁韞良(미국인 William Martin)이 번역한 「國際公法」(1864)(Wheaton's International Law)이다. 이것이 中國에서 國際關係를 論한 가장 오래된 書籍이다. 그리고 畢利幹(M. A. Billequin)이 번역한 「化學指南」과 「化學闡原」이 中國化學史上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sup>18)</sup>

이와 같이 同文館은 中國의 近代化를 위해 서양의 新學문을 수용하는데 필요한 語學教育, 번역사업, 출판사업 등을 두루 겸한 中國 最初의 近代學校였다. 이를 모방하여 設立한 우리나라의 同文學도 中國의 同文館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近代化에 크게 寄與하였다. 특히 새로운 교육의 실시, 근대식 신문의 발행 등은 다 같이 新書籍이 절실히 要求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同文學에는 자연히 文庫가 形成되었으며 그 장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상당한 量에 이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同文學文庫는 그 기능상 두 갈래로 形成되었다고 여겨지니 그 하나는 學校文庫이고 다른 하나는 新聞文庫라고 할 수 있겠다.

新聞文庫 卽 博文局에 文庫<sup>19)</sup>가 있었다는 것은 문헌상 그 확인이 가능하나, 學校文庫의 경우는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가지 記錄을 통해서 同文學에는 작은 규모로 남아 학교문고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同文學은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 소속되어 있었으므로 生徒들이 日常 필요로 하는 종이 연필 書冊 등을 다음 引用文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衙門으로부터 備給받았다.

「書本及西國紙筆 自衙門備給 故晝夜攻苦 一無懈怠」<sup>20)</sup>

17) 嚴文郁 著 : 中國圖書館發展史. 台北, 中國圖書館學會, 民國72年. p. 10.

18) 劉國鈞 著 : 前揭書

19) 李光麟 著 : 韓國開化史研究. 서울, 一潮閣, 1985. p. 93.

20) 漢城旬報. 第15號. 開國493年 2月 21日條.

支給된 冊들은 學生들의 教科書類였으므로 이들 新書籍들은 學校文庫 形成의 기초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統署章程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記錄은 그 可能性을 더욱 뒷받침 해주고 있다.

同文學 宣廣備書籍 講求有用之事 督率教習 嚴課生徒 以掌教一員領之 主事副之 再准  
駁民間刊行書籍 並開設新聞報館 均歸本學節制<sup>21)</sup>

이 중 도서와 관계되는 부분만을 요약하면 ① 同文學은 마땅히 서적을 널리 비치해야하고 ② 서적간행에 관한 일을 관장하며, ③ 아울러 新聞報館(新聞社)도 개설할 것 등이다.

이와같이 同文學에서는 서적을 널리 수집하게 되었으나 앞의 인용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同文學의 기능이 교육뿐만 아니라 서적간행에 관한 업무, 신문사 운영 등 다양하였던 관계로 이들 同文學 소속의 서적을 모두 교육용인 학교문고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同文學에 예속되고 있었던 박문국도 나름대로의 신문사 전용 문고를 두고 있었던 것이 확실하기는 하나 이것 또한 넓은 의미의 同文學文庫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위에 인용한 「宣廣備書籍」의 備置 대상기구는 학교와 박문국 양 기구를 다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 同文學文庫는 그 성격상 교육용과 신문사용으로, 즉 근대적 학교 도서관과 전문도서관적 성격을 띠면서 형성되었다고 생각된다.

同文學은 그후 育英公院<sup>22)</sup>이 設立됨에 따라 1886年 8月頃 閉校되었으나 그 書籍은 統理衙門 도서관에 흡수되어 계속 利用된 듯 하다. 1887年 4月 27日에 제정된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續章程」의 다음과 같은 書籍管理에 관한 條項은 그 可能性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本署所貯 內外圖書書籍 另 開目錄 以備查閱 遇有出入書籍 設規定限 免致遺失」<sup>23)</sup>

21) 統署章程

22) 統理文涉通商事務衙門日記, 高宗23年 丙戌 8月 10日條에

「函送墨館 本衙門學校 業已撤銷 奚教師解雇禮遺事 宜商確妥當事」라고 있어 同文學이 이미 철폐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3) 統理文涉通商事務衙門續章程(奎1523) 第9條 「記錄司」 5 項.

이 조항을 통하여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는 상당한 量의 서적을 保有한 도서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卽 첫째 圖書目錄을 작성할 정도로 책이 많이 있었다는 것, 둘째 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목록을 작성하여 公開하였다 는 것, 셋째 도서관 규정을 제정하여 貸出業務를 실시하였다는 것 등은 비록 그것이 初步的인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近代圖書館의 基本的 기능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意義는 자못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도서관이 그 출발은 同文學의 設立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지나, 그후 크게 成長할 수 있게 된 것은 同文學 소속의 博文局 卽 新聞社 경영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위 引用文의 「本署所貯 內外圖書書籍」<sup>24)</sup>을 博文局藏書로 보는 見解도 있으나 이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 면밀한 조사가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훗일 보다 확실한 자료가 나타날 때까지는 續章程에 명시된대로 「本署」 卽 統理衙門圖書館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어쨌든 同文學을 母體로 한 統理衙門圖書館이 存在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니 비록 그 利用層이 넓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國家에서 운영한 우리나라 最初의 近代的 도서관으로서 西歐의 新知識과 開化思想의 普及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評價되어야 할 것 같다.

## 4. 公共圖書館

### 4.1 大韓中央圖書館

開化期에 있어서 最初의 近代的 公共圖書館 設立을 위한 運動은 吳翰泳, 白象奎, 金東完 등 當時 有志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나타난 大韓圖書館은 비록 日帝의 侵略으로 말미암아 큰 結實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設立 意義는 자못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圖書館 設立에 관한 최초의 新聞記事는 1906年 2月 12日 皇城新聞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4) 李光麟 著 : 前揭書

「韓國圖書館：世界各國에 文明知見의 發達하기 爲하여 學校와 一般히 圖書館 或書籍館等을 設置하고 知見에 裨益한 書籍을 廣貯하여 紳士의 縱覽도 共同히하고 且稀貴한 書籍等과 新發明한 著述 及 編纂等을 發刊廣佈하여 開明上에 一層進歩되도록 注意한 것인데 我韓은 于今까지 一個圖書館도 設立치 못됨을 遺憾히 녀였더니 近日에 有志紳士들이 發起하고 圖書館을 初設할터인데 評議員은 李範九 李根湘 朴鏞和 閔銜植 閔景植 李炳鼎 尹致昊 李鳳來 諸氏가 熱心贊成하여 成立되리라하니 吾輩는 此에 對하여 感賀할 同情을 表하노니 아뭏조록 速히 成立되기를 攢頌不已하노라」<sup>25)</sup>

이 發起의 主導者는 吳翰泳으로 여겨지나 上記 記事의 評議員 名單에는 그 이름이 들어있지 않으니 吳翰泳과는 관계 없는 도서관 설립 發起 모임인지, 아니면 吳翰泳이 發起한 모임이지만 그 自身은 評議員에 들어가지 않은 것인지 확실치 않다. 이후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도서관 관계 新聞記事를 보아도 그 關係가 分明치 않으나 다만 다음과 같은 1906年 3月 26日 皇城新聞記事를 통하여 後者일 可能性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近日 有志紳士 吳翰泳氏가 大韓圖書館을 初設할事로 熱心經營함은 已報하였거나 其人員을 選定함은 如左하니...評議員은 閔商鎬 尹致昊 諸氏 等 凡二十五人...」<sup>26)</sup>

다만 兩記事가 다루고 있는 對象이 同一한 것이나 하는 의문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上記 記事의 評議員 명단에도 吳翰泳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2月 12日 發起모임 記事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두 개의 圖書館이 1個月餘의 간격을 두고 同時에 發起되고 設立된다는 것도 있기 어려운 일이며, 또한 評議員의 명단이 일부 생략되기는 하였지만 尹致昊의 경우는 그 이름이 양쪽에 다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틀후인 3月 28日 同新聞의 다음 記事는 이를 더욱 뒷받침해 주고 있다.

「近來 京城은 有吳翰泳諸氏之圖書館이 設立하고... 外方은 有平壤之大同書觀하여 爲全國廣智之嚆矢하니...[以下省略]」<sup>27)</sup>

25) 皇城新聞, 光武10年 2月 12日 (2), 雜報

26) 同上, 光武10年 3月 26日 (2), 雜報

27) 同上, 光武10年 3月 28日 (2), 論說

그러면 吳翰泳諸氏之圖書館은 언제 設立되었으며 그 정식 명칭은 무엇이었을까? 당시 新聞記事에 근거하여 그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도 인용한 皇城新聞 2月 12日字 發起 모임 기사에 이어 3日 후인 15日字에는 다음과 같은 賀圖書館之設立이라는 題下의 論說이 나타난다. 도서관의 필요성과 그 設立이 조속히 완성되기를 擘視하고 있는 內容이다. 그러나 도서관의 정식 명칭이나 그 설립준비를 위한 구체적 상황 등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凡人民之才德을 必從書籍而養成하며 人民之智識을 必資書籍而發達 故로 書籍者는 教育之根本也라... [중략]...然而書籍을 不可人人求得이오 亦不可人人貯置者니 雖有志閱覽이라도 其於難購難得에 何哉오 是以로 現今 列強이 爲此準備하야 有圖書館 書籍庫等之 設立하야 凡大都府郡之間에 麟次而櫛比焉하나니...[中略]...近日有志紳士諸人이 慨然遺憾於此하야 業已發起하고 倣列強諸國의 書庫圖書館之制하야 將經紀圖書館之設立하니 吾輩는 對比美舉하야 不勝感賀而 攢頌하노니 此乃我韓邦有之盛事也라 此館이 若成立이면 其於開導文明之功이 豈下於 一學校之設立哉아...[中略]...惟願有志諸君子란 毋蹈此習하고 必要熱心注力하야 期速完全而成立을 區區擘視也하노라」<sup>28)</sup>

그러나 이 보다 4日 후인 2月 19日字 同 新聞의 다음과 같은 廣告記事는 두가지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大韓中央圖書館 臨時事務所를 京城南署會覽坊 美洞六統六戶 李咨汶氏家로 定하얏사 오니 兪君子는 照亮함」<sup>29)</sup>

즉 그 하나는 도서관의 명칭이 「大韓中央圖書館」<sup>30)</sup>이라는 것과, 둘째는 도서관 설립준비를 위한 임시사무소가 설치됨으로써 사업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同新聞 같은 日字의 雜報欄에도 <書物寄附>라는 題下에 大韓中央圖書館의 臨時事務所가 결정되었다는 것과 아울러 安慶善이라는 독지가의 書籍寄附에 대한 記事가 나

28) 同上, 光武10年 2月 15日 (2), 論說

29) 同上, 光武10年 2月 19日 (3), 廣告

30) 皇城新聞에서는 大韓中央圖書館이라는 명칭 이외에도 韓國圖書館 大韓圖書館 宗府圖書館 吳翰泳諸氏之圖書館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필자는 大韓中央圖書館을 정식 명칭으로 보았다.

온다.<sup>31)</sup> 첫 사업으로 나타난 것이 도서관에 비치할 도서의 수집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도 購入보다는 寄贈에 依存해야 했던 당시의 사정을 또한 엿볼 수 있겠다.

大韓中央圖書館이 과연 어느 정도의 장서 규모를 가지고 경영하게 되었는지 現在로서는 관계 자료의 미비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당시 신문에 자주 보도된 篤志家들의 도서기증에 관한 記事를 통하여 그 수집방향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겠다. 다음 <表 3>은 당시 皇城新聞에 보도된 것만을 대상으로하여 그 寄贈內譯을 표시한 것이다.

<表 3> 大韓中央圖書館 設立을 위해 寄贈한 物品內譯(皇城新聞所載)<sup>32)</sup>

| 寄贈者                 | 寄贈圖書 및 物品名  | 掲載年月日       |
|---------------------|---|-------------|
| 年少有志 安慶善            | 四書一帙<br>封神演義一帙<br>史要一帙<br>水滸誌一帙<br>東國歷史一帙<br>博物新編一帙<br>空冊 二卷<br>簡筆 五柄<br>周紙 二軸<br>鉛筆 二柄<br>中羊毫筆 一柄<br>眞墨 一張<br>硯 一介 | 1906. 2. 19 |
| 農商工部 協辦 李範九         | 百科全書 三十二帙(日本新書)   | 1906. 2. 22 |
| 日本에서 洪俊植<br>16年間 留學 | 各種圖書 七十八種<br>二千七百一卷   | 1906. 2. 23 |
| 幼年學校 申鳳休 教官         | 文學興國策 一帙<br>富國策 一帙<br>自西徂東 一帙   | 1906. 3. 3  |



이밖에 徐敬敦이라는 圖章彫刻師는 장차 대한도서관에서 소용되는 각종 印章을 寄附하기도 하였다.<sup>31)</sup>

寄贈圖書의 대부분은 新書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일본에서 16년간 유학을 했다는 洪俊植의 경우는 2,701卷이라는 당시로서는 매우 방대한 量의 서적을 기증하고 있다. 그 書名들이 일일이 나타나 있지 않아 확실한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일본 유학을 오래동안 한 것으로 보아 이들 서적들도 그 대부분이 新書일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 어떤 종류의 책이 얼마나 더 기증되고 또한 어떤 도서들을 구입 비치하였는지 관계 기록의 부족으로 장서의 범위를 자세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도서관의 設立趣旨가 「欲其國力之發達인댄 必先民智之開明」<sup>32)</sup>이라는 정신에서 나온 것인 만큼 收書의 方向도 新書에 역점을 두었을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겠다.

그리고 이와 같이 독자들이 나와 많은 도서를 기증하였다던가 혹은 언론이 큰 관심을 가지고 도서관 설립에 관한 記事를 자주 다루었다던가 하는 일련의 현상들은 당시 知識人들의 도서관에 대한 강력한 요구의 발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文盲律이 높았던 관계로 大衆的 支持와 要求를 얻지는 못했다.

도서관 준비사업이 구체화도니 임시사무소의 설치가 곧 도서관의 설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 10일 후인 1906年 3月 2日 大韓每日新報의 다음과 같은 기사는 前記한 임시사무소의 설치를 곧 도서관 설립으로 인정하여 쓴 것으로 여겨진다.

「近日 漢城中央에 一圖書館이 創立하얏스니 卽 韓國名士 白象奎氏와 金東完氏와 侍從官 吳翰泳氏의 熱心發起로 各大官과 一般 紳士의 贊成을 得하여 就緒가 된 것이니 此 難 開進文化의 一機關이라」<sup>33)</sup>

그러나 이 보다는 24日 후인 3月 26日 皇城新聞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31) 皇城新聞, 光武10年 2月 19日 (3), 雜報

32) 皇城新聞, 光武10年 2月 19日~3月 3日, 雜報

33) 大韓每日新報, 光武10年 3月 6日 (2)

「鍾路圖章彫刻師 徐敬敦氏가 新設中央圖書館에 贊助하기를 爲하여 該館所用 各種印章을 寄附하얏다니 該氏의 有志를 讚揚할만하더라」

34) 皇城新聞, 光武10年 2月 15日 (2) 論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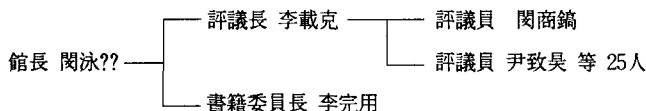
35) 大韓每日申報, 光武10年 3月 2日 (2) 雜報

「近日 有志紳士 吳翰泳氏가 大韓圖書館을 初設할事로 熱心經營함은 已報하얏거니와 其人員을 選定함은 如左하니 圖書館長은 度大 閔泳綺氏오 評議長은 宮大 李載克氏오 書籍委員長은 學大 李完用氏오 評議員은 閔商鎬 尹致昊 諸氏 等 凡二十五人인대 昨日 度大 閔泳綺氏 私第에 會同하야 設立方針을 協議하얏난대 該館舍 及 資金에 關한 一切 事務를 館長 以下 委員諸氏가 自擔實施하기로 確定하얏다더라」<sup>36)</sup>

즉 도서관 설립이 아직도 進行中에 있음을 뜻하고 있어 前記 每日新報의 그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會議場所도 도서관이 아닌 度支部 大臣 閔泳綺의 私第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때만 해도 도서관건물 역시 확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이 記事에서 한가지 주목할 사실은 館長 以下 주요 부서와 任員이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즉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임원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비록 開館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도서관의 發足を 의미하는 것이니 그 意義는 자못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구의 內容을 알기 쉽게 대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으며, 관장을 위시하여 評議員, 書籍委員長이 모두 現職 大臣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일체 자금은 委員諸氏가 自擔기로 방침을 세운 것을 보면 國立圖書館 次元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大韓圖書館에 관한 記事는 한동안 보이지 않고 있다가 약 2년반이 훨씬 지난 1908年 12월에 와서야 皇城新聞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宗府圖書館：宮內府에서 宗正府에 圖書館을 設置하기로 決定하고 該府를 現今 修理 中이라더라」<sup>37)</sup>

36) 皇城新聞, 光武10年 3月 26日 (2) 雜報

37) 皇城新聞, 隆熙2年 12月 9日 (2), 雜報

위의 記事만으로는 宗府圖書館이 과연 大韓圖書館을 가리키는 것인지 分明치 않으나 1910年 4月 5日 字 同新聞에는 宗府圖書館이라는 題下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宗府圖書館이 곧 大韓圖書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宗府圖書館：再昨日 下午三時에 各部大臣은 宗宗府에 會同하여 該府內에 設置한 大韓圖書館을 擴張하기로 協議하였더라」<sup>38)</sup>

따라서 이들 兩記事에 의거하면 大韓中央圖書館은 閔泳綺가 館長으로 決定된 후, 開館 일자는 불확실하나 宗正府內에 設置운영되어 오다가 이때에 와서 擴張케 된 것으로 여겨진다.

도서관의 擴張工事が 언제 完了되어 다시 開館하게 되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1910年 3月 22日 이후 멀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上記 日字의 皇城新聞에는 「圖書館竣工」이라는 題下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圖書館竣工：宮內府에서 句管하는 圖書館을 擴張中인데 該工役이 終了되나대로 古今書籍을 多數陳列하여 一般紳士에게 觀覽케 한다더라」<sup>39)</sup>

記事內容에는 修理中이라고 기술하고 있어서 竣工이라는 記事題目과는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기는 하나, 전후의 문맥상 竣工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大韓中央圖書館은 준공과 더불어 藏書는 물론이고 利用범위도 점점 확대되어 간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그 位相도 “各部大臣이 會同하여” 도서관 문제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아 한 次元 높은 국립도서관적 기능과 성격을 지닌 도서관으로 변모되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그러나 1910年 8月 日帝의 강점으로 인해 우리의 손으로 가꾸기 시작한 도서관의 싹은 더 자랄 겨를도 없이 무참히 짓밟히게 되었으며 우리의 도서관 전통도 단절되고 말았다.

38) 同上, 隆熙4年 2月 5日 (2), 雜報

39) 同上, 隆熙4年 3月 22日 (2), 雜報

이 記事중에 나오는 大韓圖書館이 혹시 奎章閣의 常室圖書館문제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 4.2 出版事業을 兼한 書籍縱覽所

### 大同書觀

大同書觀은 1906年 3月 平壤의 有志들에 의해 設立된 것으로 圖書 閱覽業務와 出版事業을 兼한 開化期 特有의 書籍縱覽所의 一種으로 여겨진다. 當時 皇城新聞은 「賀大同書觀之設立」이라는 題下의 論說에서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近聞 平壤之有志紳士 秦文玉·郭龍舜·金興淵諸氏가 發起協議하고 倡設大同書觀하여 以八千圓之 資金으로 將購取西洋新舊書籍하여 爲書籍縱覽所하며 兼又發刊各種書籍하여 以資民智之開發 而文化之烝進이라하니...[中略]...泰西諸國은 專爲公衆之普閱하여 其通衢大都에 莫不有圖書館·書籍庫之類하여 俾資公衆之縱覽케 하니 蓋皆開民智擴文化之主見也라」<sup>40)</sup>

위의 引用文에 의하면 設立者는 平壤의 有志 秦文玉, 郭龍舜, 金興淵등이며, 事業內容은 書籍縱覽所 卽 圖書館의 기능을 兼하여 各種書籍을 發刊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大同書觀 創立 趣旨書에도

「廣儲書籍하여 資人閱覽이 誠培植人材之要法也라 所以로 本人等이 於此注意하여 書籍과 新聞의 縱覽所를 創設하대 其位置난 平壤鍾路오 其名稱은 曰大同書觀이라...[中略]...

光武十年 三月 日

本觀에서 一般學者의 見識廣博하기 爲하여 各種書籍과 新聞雜誌를 廣求質積하고 僉君子의 志願을 隨하여 縱覽과 購讀을 一一需應하오니 照亮하심을 敬要

平壤鍾路 大同書觀

金大潤 秦文玉 郭龍舜 金興淵」<sup>41)</sup>

라고하여 大同書觀이 書籍과 新聞의 縱覽所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縱覽과 購讀

40) 皇城新聞, 光武10年 3月 28日 (2) 論說

41) 皇城新聞, 光武10年 4月 9日 (3), 雜報

을 一一需應하오니」云云한 것으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圖書의 판매 사업을 겸하고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이를 더 뒷받침해주는 資料가 皇城新聞 廣告欄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本觀에서 發售하난 教科書난 日者各新聞에 廣布하야 學生諸氏의 一覽을 供하얏거니와 今에 教科以外 歷史, 地理, 政治, 法律, 哲理, 社會, 經濟學과 農商工各實業學과 學校及著述家의 參考書類와 文房需品을 左開陳列하오니 志學人士난 陸續來購하시압  
發售所 平壤鍾路 大同書觀」<sup>42)</sup>

그리고 위에 잇대어 판매할 圖書目錄을 史學叢書, 地理學, 政治及法律學, 社會學, 哲學 등 主題別로 나누어 掲載하고 있다. 例를 史學分野에서 보면 「本國史」, 「羅馬史」, 「希臘史」, 「埃及史」 등 총 55종이나 나타나 있으며 全體的으로는 300種에 이르고 있다.

이들 서적들은 大部分 中國에서 刊行된 것을 서울의 貿易商을 통해 購入해온 것으로 여겨지나 印刷施設을 갖춘 후에는 자체에서 出刊하여 판매한 것 같다. 皇城新聞에 는 這間의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書館擴張...[前略]...該書館員 金興淵氏가 曩日 上京하야 新刊書籍萬餘卷을 數千餘圓價値로 買去하얏더니 可驚할만한 것이 不過一週內에 書籍屢千餘卷을 售出하얏난데 將次 書館을 擴張하고 活版機械를 購入設備하야 新舊書籍을 刊布할次로 日間 上海로 發往한 다더라」<sup>43)</sup>

이와 같이 大同書觀은 여러 千卷의 冊을 短時間內에 판매할 정도로 大盛況을 이룬 書籍縱覽所였다. 또한 그들이 出版한 冊은 各書店을 통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다. 다음에 引用한 것은 金相萬과 朱翰榮이 各各 運營하는 兩書店에서 大東書觀 發行的 萬國史記를 販賣하고 있다는 皇城新聞의 廣告이다. 이것은 大同書觀이 出版事業을 하였다 는 또 하나의 좋은 증거가 될 것이다.

42) 同上, 光武10年 6月 8日 (4); 6月 16日 (4); 6月 15日 (3) 廣告

43) 同上, 光武10年 4月 10日 (3), 雜報

## 「萬國史記發售

...[前略]...有志諸君난 續續購覽하시압소서

全帙十四册 三千六百十頁

定價金新貨七圓

小包郵稅三十錢

布屏下 金相萬書肆

洞口內 朱翰榮書肆

平壤 大同書觀」<sup>44)</sup>

大同書觀의 位置는 平壤鍾路 大同館 앞에 있었다.<sup>45)</sup>

大同書觀이 當時의 代表的인 書籍縱覽所라고 한다면 書籍縱覽所라는 用語가 오늘의 圖書館이라는 用語와는 概念上 상당한 差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다음에言及하는 光東書籍縱覽所의 경우는 書籍縱覽所라기 보다는 書肆나 書店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정도이다.

「金光濟, 李章薰氏等이 發起하야 書籍縱覽所를 設置한다난데 來(日曜日) 孤兒院에 會同하야 組織事務를 協議한다더라」<sup>46)</sup>

위의 金光濟등이 發起한 書籍縱覽所는 「光東書觀」으로 그 趣旨文이 隆熙2年10月6日 皇城新聞에 다음과 같이 掲載되고 있다.

「趣旨發布. 預記함과 如히 金光濟, 李章薰, 李愚烈, 朴齊成, 李建祿, 黃柱顯, 李觀鏞 諸氏가 書籍縱覽所를 發起하고 趣旨書를 發布함이 如左하니...[中略]...有書而力或難及於購覽하고 有力而書或未及於廣布면 是난 文明界의 一大缺點인즉 函開書鋪하고 咸華古今東西各種書類하야...[中略]...今日之最先務也니 此-光東書觀縱覽所之必設於通衢大都 萬人往來之地者也니라 然而書鋪를 一開則有著述之所焉하며 有印刷之所焉하니 紙墨之費와 工役之需가 必須財政일새 另 置賣却一所하니...[中略]...僉君子난 此를 照諒하시고 惟意來

44) 皇城新聞, 光武10年 6月 20日 (4), 廣告, 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同一한 內容의 廣告가 나타난

45) 大韓每日新報, 光武10年 3月 24日 (2), 雜報

46) 皇城申聞, 隆熙2年 9月 22日 (2), 雜報

購하시면 本觀은 오죽 無窮토록 供하야...」<sup>47)</sup>

오늘의 시점에서 본다면 大同書觀이나 光東書觀은 모두 出版業을 겸한 書舖에 불과한 것이며, 다만 한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들이 所藏한 도서를 일반 公衆에게 공개하여 부담없이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이것이 또한 書籍縱覽所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연유일 것으로 짐작된다. 開化期는 政治, 經濟, 社會, 文化 全分野에 걸쳐 큰 變革을 갖어다 준 過渡期였으므로 圖書의 出版과 販賣 分野에 있어서도 過渡期的 現象의 하나로 書籍縱覽所라는 特有의 形態가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當時 言論들도 이런 類의 書籍縱覽所들이 新知識의 보급과 民智의 開發에 공헌하는 바 크다고 인정되어 그 設立을 祝賀하고 때로는 主要 論說記事로 다루기도 하였다.

한 社會 속에 도서관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그 胚胎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야 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겠다. 그 여건중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圖書 出版이라고 할 수 있으니 圖書館이 없었던 當時로서는 書籍縱覽所의 出現이 새로운 名物로서 世人의 注目を 끌었을 것이다. 따라서 서적종람소를 한낱 書舖로만 보고 돌리기 보다는 圖書館을 지향한 圖書館 胚胎期 現象의 하나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러나 書籍縱覽所를 모두 다 도서관의 범주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도서관의 기본 조건의 하나가 非營利性에 있다고 한다면 書籍縱覽所의 경우도 그 設立目的이 營利에 있지 아니하고 公益事業을 수행하는데 있어야만 圖書館의 一種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開化期에 나타난 書籍縱覽所들이 과연 어느 쪽에 속해 있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면밀한 조사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 좀 후기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鄉校들이 日帝治下에서 그 本來의 教育的 機能을 할 수 없게 되자 書籍縱覽所로 活用된 바 있었다. 이런 경우는 非營利性이 뚜렷하므로 簡易圖書館의 一種으로 보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겠다. 따라서 開化期에 있어서도 書籍縱覽所의 종류는 營利的인 것과 非營利的인 것 두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위의 大同書觀의 경우도 營利을 目的으로 운영한 것인지, 아니면 書籍縱覽所로서의 機能이 設立의 主目的이었는지 확실히 밝혀져야 되겠지만 現在로서는 資料의 未備로 斷言하기 어려우나 前者일 가능성이 높다.<sup>48)</sup>

47) 皇城新聞, 隆熙2年 10月 6日 (1), 雜報.

48) 皇城新聞에 나타난 資料만을 가지고 判斷한다면 大同書觀은 圖書의 出版과 販賣가 一次的인 目的이고 書籍縱覽所로서의 機能은 副次的인 것으로 보인다.

## 5. 專門 및 特殊圖書館

開化期 社會의 變化에 따라 專門, 特殊圖書館 등도 出現하게 되었다. 現在 알려진 것으로는 博文局文庫와 鍾路監獄署文庫가 있다.

### 5.1 博文局文庫

앞에서言及한 바와 같이 博文局文庫는 同文學에 소속된 新聞報館의 文庫였음으로 정확히 말하면 同文學新聞報館文庫라고 해야 옳다.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章程에 의하면 그 산하 機構는 모두 5개 부서로 구성되고 博文局은 그 중 하나인 同文學에 소속되어 있었다.<sup>49)</sup> 따라서 博文局文庫는 넓은 의미로는 同文學文庫라고도 할 수 있으나 博文局인 新聞社는 업무의 性格上 독립적인 운영을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文庫의 形成 과정에 있어서도 獨自性이 要求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博文局文庫는 신문 편집상에 필요한 參考用 圖書를 중심으로 形成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同文學(校)의 教育用文庫와는 區別되지 않을 수 없다.

李光麟 教授의 研究에 따르면 博文局에서는 신문 제작에 필요한 도서를 外國에 자주 注文하였던 것 같다. 한 例로 그 중 일부를 引用하면 다음과 같다.

1886年 4月 22日(陰曆 3月 19日) 注文했던 나머지 책이 入荷되었다. 前번의 책 書目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이번의 書目은 「德案」에 나오므로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格致釋器上一部, 萬國通鑑一部, 西學攻略一部, 寶藏與焉一部, 電學一部, 化學初階一部, 化學考質一部, 化學鑑原一部, 化學分原一部, 水電祕要一部, 砲準心法一部, 攻守砲法一部, 製火藥法一部, 爆葯紀要一部, 克虜伯說一部, 砲彈造法一部, 紀效新書一部, 練兵實紀一部, 談瀛錄一部, 發蒙益慧一部, 益聞錄(自五百七八至五百四十二號), 申報(自十一月至二月十一日), 九十四張, 滙報同上 九十四張, 畫報(自五十四至六十九號), 十六本, 畫圖新報二本

49)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章程에 의하면 掌交司, 征推司, 富教司, 郵程司, 同文學 以上 5개 부서이다.



이러한 歷史·科學·軍事學에 관한 책과 新聞類는 물론 圖書室에 收藏되어 周報 編輯에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sup>50)</sup> 또한 그는 博文局에 圖書室이 설치된 것은 博文局이 重建될 무렵인 1885年頃으로 보고 있다.<sup>51)</sup>

博文局文庫는 專門圖書館으로서의 기능을 다 한 한국 最初의 近代專門圖書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文庫 역시 開化期가 낳은 또 하나의 文化的 產物이라 하겠다.

## 5.2 鍾路監獄署 文庫

1903年 1月 鍾路監獄署에는 죄수들을 위한 圖書室이 있었다. 이것이 아마 우리나라 近代特殊圖書館의 嚆矢가 될 것이다. 李光麟 教授의 「舊韓末 獄中에서의 基督教 信仰」<sup>52)</sup>이라는 論文에 상세함으로 이에 의거하여 그 대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圖書室은 벵커(Delzell A. Bunker, 1853-1932) 牧師의 주선으로 설치되었다. 「처음에 모인 책은 250여 卷이었고, 이 冊들은 ‘벵커’ 牧師가 寄贈한 것과 중국의 上海와 일본에 거주하던 외국인 宣教師들이 寄贈한 것이었다. 그런데 「監獄署圖書貸出簿」 뒤에 붙어 있는 ‘書籍目錄’에 의하면 漢文책 222種 338卷, 한글책 52種 165卷, 英文책 20種 20卷, 총 294種 523권이 收藏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서적실에 수장된 책은 처음에 비해 뒤에는 倍로 증가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 틀림없이 ‘벵커’ 牧師의 不斷한 努力의 결과라고 생각된다.<sup>53)</sup>

그리고 利用率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당시 作成된 「監獄署貸出圖書簿」에 의하면 1904年 1月 17日부터 다음 해 8月 31日 까지 約 20個月 동안에 대출된 圖書는 2,020卷에 달했으며 貸出人員數도 229名이나 되었다.<sup>54)</sup>

이와 같이 종로감옥서文庫는 특수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비록 外國人 宣教師들에 의해 이룩된 도서관이기는 하나 그 利用者는 모두 한국인이었으니, 기독교 교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開化意識을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50) 李光麟 著 : 韓國開化史研究, 서울, -潮閣, 1985, p. 93

51) 同上

52) 李光麟 著 : 韓國開化史의 諸問題, 서울, -潮閣, 1986, p. 217~238

53) 上掲書, p. 229~230

54) 上掲書, p. 230

## 6. 奎章閣의 變貌

甲午改革 이후 奎章閣은 新設된 宮內府에 豫속되어 그 名稱이 一時 「奎章院」으로 변경되었다가 光武9年(1905)에 다시 本來의 名稱으로 還元되었다. 同年 3월에 公布된 「宮內府官制」에 의하면 奎章閣과 관련된 事項은 第 32條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制三十二條 奎章閣에 左갓치 職員들 置하야 皇室書籍及記錄을 保管하고 列聖御製御聖과 御眞과 皇統報 皇族牒籍 奉藏하난 事를 掌함이라」<sup>55)</sup>

職員은 學士, 直學士, 直閣, 特製 各 1인에 主事 2人으로 되어 있다. 위의 引用文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때만 해도 從來의 奎章閣 기능과 크게 다른점이 없다. 그러나 隆熙元年(1907)에 ??達된 同官制에 의하면 다음 引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規模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第二十七條 奎章閣에 左갓치 職員을 置하니 帝室의 典籍과 文翰記錄을 保管하며 列聖御製 御章 御眞과 璿源譜牒 及 進講代撰并宗室에 關한 事務를 掌하고 議謚祭典에 參列함이라」<sup>56)</sup>

1905年 官制와 다른 점은 「皇室」이란 表現이 「帝室」로 바뀐 것이고 前者에는 없었던 進講代撰과 아울러 宗室에 關한 事務를 관장하고 議謚祭典에 參列하는 기능이 더 부과 되었다. 그리하여 職員도 다음과 같이 대폭 增員 되었다.

|     |       |                               |
|-----|-------|-------------------------------|
| 大提學 | 1人    | } ... 侍講及代撰을 掌理하고 議謚祭典에 參列한다. |
| 提學  | 10人以內 |                               |
| 副提學 | 10人以內 |                               |
| 直閣  | 10人以內 |                               |

55) 宮內府官制. 光武9年 3月 4日 布達 第126號

56) 同上, 隆熙元年 11月 29日 布達 第161號

|     |      |                        |
|-----|------|------------------------|
| 祗候官 | 10人  | … 閣務의 顧問에 應한다.         |
| 卿   | 1人   | … 閣務를 總理하고 職員을 監督한다.   |
| 記注官 | 2人   | … 卿을 輔佐하여 閣務를 掌理한다.    |
| 典製官 | 2人   |                        |
| 主事  | 專任4人 | … 上官의 指揮를 받아 閣務를 掌理한다. |

위의 職員중 傳統的인 奎章閣 고유의 圖書館的 業務에 종사하는 實務職員은 卿 以下 主事까지 9名으로 1905年 보다 3名이 더 증가된 셈이다.

奎章閣이 近代的인 圖書館 관리 체제를 갖추게 되는 것은 다음 해인 隆熙2年 (1908)부터라고 할 수 있겠다. 同年 9月에 제정된 「奎章閣分課規程」<sup>57)</sup>에 依하면 閣內에 다음과 같은 4개 課를 設置하고 있다.

- 1) 典謨課: 列聖御製·御筆·御章·御眞의 保管, 塔源譜牒의 編纂 등에 관한 사무와 奉審 및 祭典 參列에 관한 事項
- 2) 圖書課: 圖書의 分類, 整理, 保管, 購入, 繕寫, 出納 등에 관한 事項
- 3) 記錄課: 公文書의 編纂, 保管, 分類, 整理 등에 관한 사무와 史庫에 관한 사항
- 4) 文事課: 進講, 代撰, 諡號에 관한 事項과 綸綍, 日省錄 編纂, 史冊의 起草 및 修正에 관한 事項

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奎章閣은 도서관의 基本的 機能인 도서의 購入, 整理, 保管, 貸出 등 業務外에도 文書의 編纂 保管에 관한 業務도 關장하므로써 文書館(Archives)으로서의 機能도 竝行하고 있었으며, 또한 史冊의 起草, 修正 및 史庫에 관한 事項도 關장하여 國史編纂事業도 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한편 장서 構成上에도 조금씩 變化가 일기 시작하였다. 從來의 漢書籍 일변도에서 벗어나 新學問과 관련된 新書籍이 수집 대상에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작성된 奎章閣書目 3冊(圭, 11670)중 第1冊에 보면 다음 例와 같은 新書籍 書名이 보인다.

化學鑑原, 化學初階, 博物新編, 工業新書, 萬國公報, 醫學入門, 地學, 大英國志, 百科全書, 染工全書, 萬國商法, 光學 등.

57) 奎章閣分課規程. 隆熙2年 9月 23日 (官內府規例, 官內部大臣官房調査課, 隆熙4年 6月.p. 48-50)

隆熙3年(1909)에는 「帝室圖書保管規程」<sup>58)</sup>을 정하여 奎章閣圖書課에서 그 保管業務를 관장하게 되었다. 여기서 帝室圖書라고 하는 것은 奎章閣, 侍講院, 集玉齋, 北漢山行宮에 보관되었던 書冊을 의미하며 이러한 規程을 만들게 된 것은 아마도 이들 書冊을 한 자리에 收藏하여 近代의인 帝室圖書館으로 發展시킬 目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겨진다.<sup>59)</sup>

이 規程에 의하여 우선 整理업무를 살펴보면 圖書課에는 ① 圖書原簿 ② 圖書目錄 ③ 圖書出納簿를 備置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圖書의 分類는 四部分類法에 따라 하고 近世의 著書로 이 分類法에 依]하기 어려운 것은 별도로 分類法을 정한다」라고 하였다. 新學問을 對象으로한 새로운 圖書들은 이 때 이미 四部分類法으로는 그 分類가 어려워 별도의 分類法이 必要하다는 것을 認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별도의 分類法을 실제 만들어 新書籍의 分類에 使用하였는지 現在 남아있는 資料가 없어 확실한 내용을 알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認識은 다시 말해서 傳統의인 君主時代 圖書館에 새 變化가 일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新文化의 수입에 따른 하나의 過渡期的 現象이라고 할 수 있겠다.

帝室圖書에는 모두 그 冊首에 「帝室圖書之章」이라는 印章을 찍었으며, 또한 同規程에 「番號, 架號, 筐號 其他 必要한 事項을 記入하여...」云云 한 것으로 보아 各冊마다 書架上的 排列番號 卽 오늘의 請求記號에 해당하는 番號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帝室圖書貸出規程」에 例示된 「借覽證樣式」에도 다음과 같이 위의 諸番號를 記入하는 欄이 마련되어 있다.

〈表 4〉 帝室圖書借覽證

| 書 名 | 著 者 | 番 號 | 冊 數 | 筐 號 | 架 號 |
|-----|-----|-----|-----|-----|-----|
|     |     |     |     |     |     |
|     |     |     |     |     |     |

\* 一部 必要한 部分만 轉記하였음.

58) 帝室圖書保管規程. 隆熙3年 11月 25日 (官內部規例, 同上, p. 192~202)

59) 帝室圖書目錄(奎25243) 官內府奎章閣圖書課 隆熙3年 11月「例言」參照

現在 奎章閣 圖書중 「帝室圖書之章」이라는 藏書印이 찍힌 것은 이 당시 整理된 冊들이며, 現存하는 「帝室圖書目錄」도 이 때 작성된 것이다. 이 目錄의 「例言」에

「本課所管의 帝室圖書는 奎章閣, 春坊, 集玉齋, 及北漢山行宮, 貯藏에 係한 書冊 概計 大凡 一萬餘冊을 蒐集하야 四庫의 法에 依하야 此를 類別整頓하고 假目錄을 編次함...以下省略」<sup>60)</sup>

라고 한바와 같이 當時 정리된 서책은 10萬餘冊에 이르며, 이들 書冊을 韓國圖書와 中國圖書로 區分하고 分類는 四部分類法에 依하고 있다.

한편 圖書의 保管 및 貸出에 관한 業務를 위의 規程과 同年同月에 나온 「帝室圖書 貸出規程」<sup>61)</sup>에 의거하여 그 대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圖書는 每年 1회씩 曝曬를 하였으며 그 期間은 9月15일부터 10月15일까지로 되어있다. 貸出業務도 상당히 철저히 다루었다. 圖書의 閱覽 또는 貸出對象은 宮內府職員에 限하며 職員이 아닌 경우에는 宮內府次官의 承認을 要한다고 하였다. 다만 宮內府 各廳課에서 항상 備置할 도서는 借用證만 送交하면 期限을 정하지 않고 대출이 가능하였다. 貸出期間은 30日以內이며 貸出圖書數는 1時에 3部9冊을 초과할 수 없고 다음과 같은 도서는 열람 또는 借覽을 不許한다고 하였다.

- 1) 貴重한 圖書
- 2) 特別한 圖書
- 3) 貸出치 못함으로 認하난 圖書

貸出圖書를 滅失 또는 毀損하였을 경우에는 賠償의 責任을 지게 하였다. 그리고 借]覽樣式, 帝室圖書閱覽簿樣式등이 條文 끝에 附錄形式으로 例示되어 있다.

이와 같이 奎章閣圖書의 管理가 많이 近代化되기는 하였으나 도서의 열람이나 대출 대상이 宮內府 職員에 한정되어 일반에게 公開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奎章閣이 그 本來의 設立目的이나 性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칼슈테트(Peter Karstedt)는 公共圖書館이 될 수 있는 要件으로 첫째 도

60) 上揭書

61) 帝室圖書貸出規程. 隆熙3年 11月 9日 (宮內部規例, 同上, p. 202~207)

서관은 보다 廣範한 利用者에게 公開되어야 하고, 둘째 도서관은 公權인 國家, 自治團體 其他 公共團體의 所有에 歸屬되어야하며, 셋째 도서관은 公共資金에 의해 維持되어야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奎章閣은 그 設立 主體가 國王이고 또한 運營이 宗親府라는 皇室機關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利用 範圍에 있어서도 本來의 限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어느 모로나 公共圖書館의 機能을 수행하였다고는 볼수 없겠다. 그러나 奎章閣은 當時 가장 많은 藏書와 職員과 施設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近代化 과정을 통하여 將次 國立圖書館 또는 公共圖書館으로 發展될 수 있는 諸般要件을 갖춘 唯一한 圖書館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例는 外國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으니 프랑스의 國立圖書館이나 英國의 大英博物館圖書館(현재의 英國國立圖書館參考部)등이 사정은 약간씩 다르지만 王室文庫가 根幹이 되어 오늘의 國立圖書館으로 發展된 것들이다.

위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奎章閣이 王室에 歸屬된 모든 도서와 기록을 한자리에 수집하여 假目錄까지 作成하였다는 것은 將次 奎章閣을 近代的인 帝室圖書館 또는 國立圖書館으로 발전시킬 계획에서 그 준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日帝의 강점으로 말미암아 그 계획은 좌절되고 말았다. 奎章閣은 끝내 獨自적으로 發展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近代的인 國民의 도서관을 이루지 못한 채 日帝의 손에 넘어 가게 되었다.

## 7. 結 論

韓國近代圖書館의 萌芽期에 나타난 몇가지 현상들을 통하여 확인된 사실은 이 시기에 생겨난 모든 도서관이 하나같이 당시 고조되었던 愛國啓蒙思想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近代圖書館의 기본적 性格은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나타난 新教育정신 卽 萬人에게 새로운 지식을 보급하는데 있었다. 이를 具現하는데는 많은 學校와 더불어 圖書館의 設立이 要求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편의상 學校도서관, 公共도서관, 專門 및 特殊도서관, 奎章閣등 네 分野로 나누어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學校圖書館

近代도서관의 萌芽는 教育分野에서 먼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애국계몽사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當時의 진보적 지식층들에 의해 전개된 新教育運動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들은 外勢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西洋의 신학문과 新技術을 翫得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近代私立學校의 嚆矢인 元山學舍(1883)의 設立 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 학교는 元山 地方民들의 自力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新書籍이 매우 희귀했던 때임에도 작은 규모로나마 학교문고가 형성되고 있었다. 또한 이 文庫는 학교 契員의 公議에 의해 自主의이고 自發의인 운영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官立教育機關이었던 同文學(校)의 경우도 教育內容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設立취지에 있어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同文學은 淸國의 洋務派들이 中心이 되어 設立한 中國 최초의 신식교육기관이었던 同文館을 모방한 것으로, 그 設立과 운영에 있어서는 당시 領選使로서 中國의 文物制度를 시찰한 바 있는 金允植등 開化人士들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들 교육기관에 싹트기 시작한 文庫의 性格도 자연히 그 母體인 學校의 設立정신을 이어받아 形成되어 나갔다. 이들 교육문고에 要求되는 書籍들 역시 開化思想의 구현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었다.

### 公共圖書館

大韓中央圖書館 : 大韓中央圖書館은 開化期를 代表하는 일반 대중을 위한 唯一한 公共도서관이었다. 이 도서관 設立 운동이 시작된 1906年은 乙巳條約 이후 애국계몽운동이 더욱 고조되어 갔던 시기였다. 도서관 評議員 중에는 尹致昊, 閔商鎬등 일찍이 미국유학을 한 開化人士들이 포함되고 있었다. 전체 장서의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설립 준비기에 수집된 冊의 書名을 통하여 그 대부분이 西洋의 학문과 지식을 소개한 新書籍들임을 알 수 있다.

大同書觀의 問題 : 從來는 大同書觀을 公共圖書館의 하나로 잘못 認識하여 왔다. 이번에 처음으로 大同書觀이 公共도서관이 아니고, 주로 中國의 新書籍을 대규모로 수입하여 판매하였던 書鋪임을 밝혔다.

### 專門 및 特殊圖書館

開化期 最初の 專門圖書館으로는 博文局文庫, 特殊圖書館으로는 鐘路監獄署文庫를 각각 들 수 있다. 이들 도서관도 모두 開化思想의 普及에 기여하였다.

### 奎章閣

奎章閣은 朝鮮王朝를 代表하는 前近代의 王立圖書館이었다. 그러나 開化期에 접어들면서 도서관 조직도 조금씩 近代化되어 갔으며 도서수집에 있어서도 新書籍의 구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日帝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國立中央圖書館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말았다.

### 近代圖書館의 成長 障礙要因

開化思想의 普及과 愛國啓蒙運動의 影響으로 近代도서관이 싹트기는 하였으나 그 成長은 매우 부진하였다. 要因으로는 다음 세가지를 들 수 있겠다.

도서관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社會的 要求가 어느 정도 성숙되어야 하는데 당시 社會는 그렇지 못하였다. 도서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先覺者는 知識層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 불과 하였을 뿐 文盲率이 높았던 一般 大衆은 물론이고 대다수의 지식인들도 近代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매우 희박하였으므로 도서관에 대한 社會的 要求는 그 만큼 약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는 圖書館資料의 供給源이라고 할 수 있는 出版界가 너무 열악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開化期의 圖書出版量은 1910년까지 幾百種에 불과하였으며, 그것도 教科書類가 대부분이었으니 도서관 藏書의 빠른 增加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 셋째는 재정 문제를 들 수 있겠으나 당시의 經濟力으로서는 도서관의 영세성을 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가장 큰 장애는 1910년의 日帝 侵略에 있으니, 한국근대도서관의 萌芽는 무참히 짓밟히게 되었고, 개화기에 形成된 도서관 文化의 전통도 우리 고유 文化와 함께 모두 단절되고 말았다.



## ABSTRACT

**A Study on the History of Korea's Modern Library**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Establishment  
of Modern Libraries and  
its Characteristics in the Opening Period. –

Choon-Hee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modern library which was in a germinal stage at the opening period of Korea.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 (1) Modern libraries which began to develop during the opening period of Korea were deeply rooted in the spirit of patriotism. After 1905, which was the year of so-called Korean-Japanese Protocol concluded under the Japanese military pressure, the patriotic enlightenment campaign against foreign penetration developed rapidly throughout the country. Accordingly, the movement for establishing modern library was carried out among advanced reformers.
- (2) The first modern school library was built in the private school of Wonan established by the residents of Wonsan area. They believed that the best way to strengthen the national power to oppose Japanese penetration was to learn the Western culture and technology.
- (3) The first modern public library named The Central Library of Korea was originated by Oh Ha Young and his comrade in 1906. Included among these promoters of the library were Yun Chi Ho and Min Sang Ho, two persons who had experienced Western culture during their study abroad.

---

\* Professor of SungKyunKwan University.

- (4) Pakmunkuk, the newspaper office of the government, had its own library in 1883 which was the first modernized special library in Korea.
- (5) Major factors which hindered the rapid growth modern libraries in the opening period are as follows; ① Lack of people's demand for the library. ② Limited scope of the publications(mainly school text-books) ③ Poor financial conditions.
- (6) Japanese invasion in 1910 had broken the growing roots of modern libraries in formative stage.